

“지방경제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통합 지지해달라”

안철수·유승민 대표 광주서 통합 드라이브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이 광주의 찾아 “광주와 대구가 함께 잘 살고 모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통합에 반대하며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국민의당 일부 국회의원을 겨냥해 “교섭단체인 20석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날 양당 통합으로 탄생할 ‘통합개혁신당’의 당명 공모에 나서서 등 통합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에서 열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동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적인 전당원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고, 최종 결정도 전당대회에서 묻겠다고 해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해 설득을 잘 하지 못했다는데 전당대회까지 2주 조금 더 남아있다.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설득하고 많은 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길이 호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제 진심을 계속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통합 반대 일부의원들 자신 입지 위해 호남 고립”
유 “개혁 제대로 보여드릴 것”

또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개혁신당 창당 추진과 관련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여서도 거기서 교섭단체 수준의 사람을 모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고 단정지은 뒤 통합 반대 비례대표 의원 출당 여부에 대해선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입장을 밝혔다. 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유승민 대표도 “광주, 전남, 전북의 호남민들이 통합개혁신당에 대해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당장 (통합)에신뢰가 생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어려운 지방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대로 개혁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다면 언젠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줄 날이 꼭 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안 대표도 이제까지, 오늘까지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왔고 저도 마찬가지이다”며 “개인적인, 사소한 생각의 차이나 성격의 차이 등을 다 극복하고 안 대표와 제가 의기투합 되는 게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정치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특히 “어렵게 연애를 해 결혼한 만큼 결혼을 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며 통합 과정을 연애, 통합을 결혼에 비유하기도 했다.



통합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3일 광주 서구 양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남부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한편 양 당은 통합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통합추진협의체’(통추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당 대표의 통합선언(정신)과 개혁세력이 동참하는 통합개혁

신당의 의미와 가치를 반영하고 대한민국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당명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특별법 2월 국회서 통과할까

내달 6일 국방위 공청회

국회 국방위원회가 다음달 6일 5·18 진상규명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1월30일~2월28일)기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18특별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될 가능성이 컸으나 자유한국당이 국방위 법안소위 합의를 뒤엎고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준수를 내세우며 공청회 개최를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연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23일 국회 국방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5·18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청회는 주요 안건(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전 이해관계자나 관련분야의 권위자 등 진술인을 불러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위원회 심사의 한 형태지만, 여야 합의로 생략할 수 있다.

한국당의 요구대로 공청회를 거치는

만큼 5·18특별법안의 국방위 통과 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는데, ‘한국당이 기존 입장만 유지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5·18특별법안 국방위 의결 무산 후폭풍이 불거진 이후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적극 찬성한다. 다만 국회법 절차는 준수해야한다(공청회 개최)’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5·18특별법안은 37년이 넘도록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집단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압매장 등 5·18 핵심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위는 5·18 공청회 바로 다음날인 7일에는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징계카드 미루고 통합반대파에 최후통첩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당무위 일단 보류 “주말까지 입장 정리” 요구

국민의당이 23일로 예정됐던 통합반대파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보류하면서 일단,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의 정면충돌은 미뤄졌다. 하지만, 28일로 예정된 반대파의 개혁신당 발기인대회까지 총돌시점을 잠시 연기했을 뿐이어서 양 세력 간에 전선이 갈고름과 있다.

전날 안철수 대표가 당무위를 열어 반대파 의원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을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에는 별집을 쏘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처에서 김관영 사무총장, 이태규 오세정 김중로 김수민 의원과 최명길 전 의원 등이 모여 징계 대상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무슨 근거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중립파 역시 안 대표와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이번 징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대표 측에서는 당무위를 일단 연기하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결코 중단할 수 없다. 이에 반대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요구한다”며 “신당 창당 등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에 협력해야 한다.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통합반대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통합반대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연기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오는 28일 반대파의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대회 다음날인 29일 안 대표 측이 당무위를 열어 징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일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번 주말이 내용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통합 반대파인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대변인인 최경환 의원은 논평을 내고 “애초 열릴 수도 없고, 열려서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당무위였다. 1인 벤처기업도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며 “안 대표는 더는 대한민국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이날 조배숙 창당추진위원장 및 김경진 창당기획단장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광주를 동반 방문한 데 대해 “정치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이미 떠나버린 호남민심을 붙잡으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안 대표가 광주에서 통합반대를 ‘정치적 입지를 위해 호남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규정한 대해 “그대로 말을 돌려드리고 싶다. 안-유 보수통합, 야합의 실질적 내용은 호남 고립, 호남 포위”라고 받아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